

신명난 우리 가락에 요코하마가 들썩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가나가와현립음악당서 공연

판소리·민요·전통무용 등 갈라쇼 형식으로 진행

전통국악 알리는 기회... 수익금 지원복구 성금 기탁



일본 제1의 항구도시 요코하마가 들썩 거렸다. 4일 오후 7시 가나가와현립음악당을 가득 메운 1000여명의 관객들은 구성된 남도소리와 가야금 등 전통악기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한국의 국악공연에 환호성을 보냈다.

소고와 장구,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추는 전통춤 공연 때는 흥에 겨워 박자를 맞춰주며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다.

또 '가야금 병창' '민요' '산조합주' '판소리' '설장고'에 이르기까지 한국국악의 모든 것을 보여준 무대에 일본 관객들은 호기심 가득 찬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일본 한국국악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한·일간 문화 친선교류와 국악진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재일본요코하마총영사관(총영사 이수준) 초청으로 이뤄졌다.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의 일본 공연은 지난해 처음 열려 관객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박평민, 김명남, 김찬미 등 역대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연단의 이번 무대는 판소리, 민요, 전통무용 등 한국국악의 진수를 일본

인에게 선보이는 갈라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려한 부채춤(홍은주 외 6명)으로 시작한 공연은 가야금병창(송은영 외 2명)과 민요(김미진 외 5명)를 선사했고, 대금(연주자 송선명)과 아쟁(박정진), 장고(김준영)가 어우러진 산조합주로 이어졌다.

이어 '속대머리', '수궁가' 등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고, 설장고(홍설희) 공연과 소고와 장구부(주현선 외 6명)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피날레는 단막창극 '심청가'가 장식했다. 심청가 중 '심봉사 눈치는 장면'을 극으로 꾸민 단막창극은 박평민(심봉사 역), 김미진(심청 역), 유태평양(어전사령 역)씨 등 출연자들의 멋진 소리와 연기로 한국국악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마저도 웃고, 울었다.

일본측은 이번 무대에 일본 전통피리인 사쿠하치(연주자 사카다 료잔)와 일본식 가야금 고토(연주자 호리에 쿠미코)의 독주와 합주를 펼쳐 보이며 화답했다.

공연을 본 한 일본인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너무 아름다운 한국춤과 악기의 선율에 반했다"며 "한국문화를 좋아할 것 같고,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연장에 함께한 이수준 총영사는 "한류가 아이돌 그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늘 증명해 주는 공연이었다"며 "전통국악을 세계에 알리고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해서 펼쳐지는 국제공연임에도 음향과 조명장비 운용이 미흡했고, 한국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위해 판소리 대본 등 번역작본이 필요했으나 준비하지 못한 채 진행돼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공연을 이끈 김종채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악예술을 일본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을 펼쳤다"며 "향시 한국의 예술혼을 선양한다는 자부심을 품고 실력을 갈고 닦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이번 해외공연은 계기로 상설팀을 만들어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공연을 펼쳐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사관측은 "이번 공연은 일본의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의미도 있었다"며 "공연 수익금과 모금액 전부를 일본 동부지역 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기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코하마=김대성기자 bigkim@

“소설가 김훈과 문학 이야기 나뉘요”

19~20일 장흥 천관산 자락서 '문학의 섬' 행사

문학의 고장, 장흥 천관산 자락에서 오는 19~20일 소설가 김훈의 문학 강연이 곁들여진 '문학의 섬' 행사가 열린다.

장흥군이 주최하고 천관문화관이 주관하는 '문학의 섬'은 소설가나 시인을 초청해 문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초청 문인과 1박2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이색 행사다.

이번 5번째 '문학의 섬' 행사에는 '남한산성' '흑산'의 저자 김훈이 문학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 가야금 연주에 맞춘 먹춤 공연, 풀과 뜰 밥으로 열곡 그리기, 김훈의 문학세계 및 장흥 문화관련 O·X퀴즈, 초청작가의 작품에서 뽑은 문장 낭송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 문학관 주변 산책, 장흥 소설 문학의 산책이라 할 수 있는 회진 포구 기행, 한승원 생가가 있는 신상마을과 정남진 전망대 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가능 인원은 100명이며 참가비는 3만원(식비)이다. 이 중 선착순 30명에게는 무료로 잠자리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대홍(천관문화관 기획연구실장) 시인은 "작가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문학의 꿈을 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문학의 섬'은 그동안 나희덕 시인을 첫 강사로 초청한 이후 정일근, 김용택, 안도현 시인 등이 참여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학축제로 자리 잡았다. 문의 061-860-045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을 서점가에 부는 男風

10월 베스트셀러 男독자 비중 45.2%

올가을 서점가에 남성 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6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달 베스트셀러 상위 20위 도서에 대한 남성 독자 비중은 45.2%를 기록했다.

통상 도서시장에서는 여성 독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 남녀 독자의 비중은 4대 6에서, 말게는 3대 7 수준을 기록한다.

올해 1~9월에도 베스트셀러 도서에 대한 남성 독자는 점유율이 35.7%(1월)에서 41.9%(6월) 사이를 기록하며 대체로 40%대를 밀었다가 10월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 독자가 많은 분야의 책이 최근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기 때문에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베스트

셀러 순위를 주도하는 책 가운데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인기가 있는 책이 많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전기 '스티브 잡스'는 출간 이후 현재까지 남성 독자 비율이 55.9%로, 여성 44.1%보다 많다.

김어준의 '다치고 정치', 김용민 '나는 품수다 뭇담화'와 '조국 현상을 말하다' 등 인터넷 라디오 '나는 품수다'와 관련된 정치 도서도 모두 남성 독자의 비중이 더 높다. 더불어 여성 독자의 비중이 높은 문학 분야에서도 특히 남성에게 인기 있는 작가인 김훈의 신작 역사소설 '흑산'도 구매자의 58.1%는 남성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부르는 박이제 '내 가슴의 그대여'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11일 호신대 티브라운

매달 한차례(두번째 금요일)씩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함께 부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 11월 행사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늦가을에 함께 배우는 노래는 작곡가 박이제(중앙대 작곡과 교수·사진)씨의 작품들로 '내 가슴의 그대여', '하늘을 보고 있으면'을 김재선씨의 지도로 함께 부른다.

또 작곡가 김동완의 곡들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남이 오시는지', '그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세노야' 등도 함께 부른다.

그밖에 회원 정숙자·김우진·나성희씨가 무대에 서며 소프라노 고수연씨가 찬조출연, '간다 간다 하더니', '연가'를 선사한다.

조봉초등학교 어머니 노래 동아리와 서예숙씨의 낭송(그대의 발명)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행사는 12월 9일 남구문예회관에서 '송년 자선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준비했다. 회원들의 연주와 소프라노 김선희, 바리톤 김재선, KBS 어린이합창단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수익금 전액은 시설에 기부한다.

cafe.daum.net/gjkrong. 티켓 가격 1만 원을 내면 차와 맥을거리기를 제공한다.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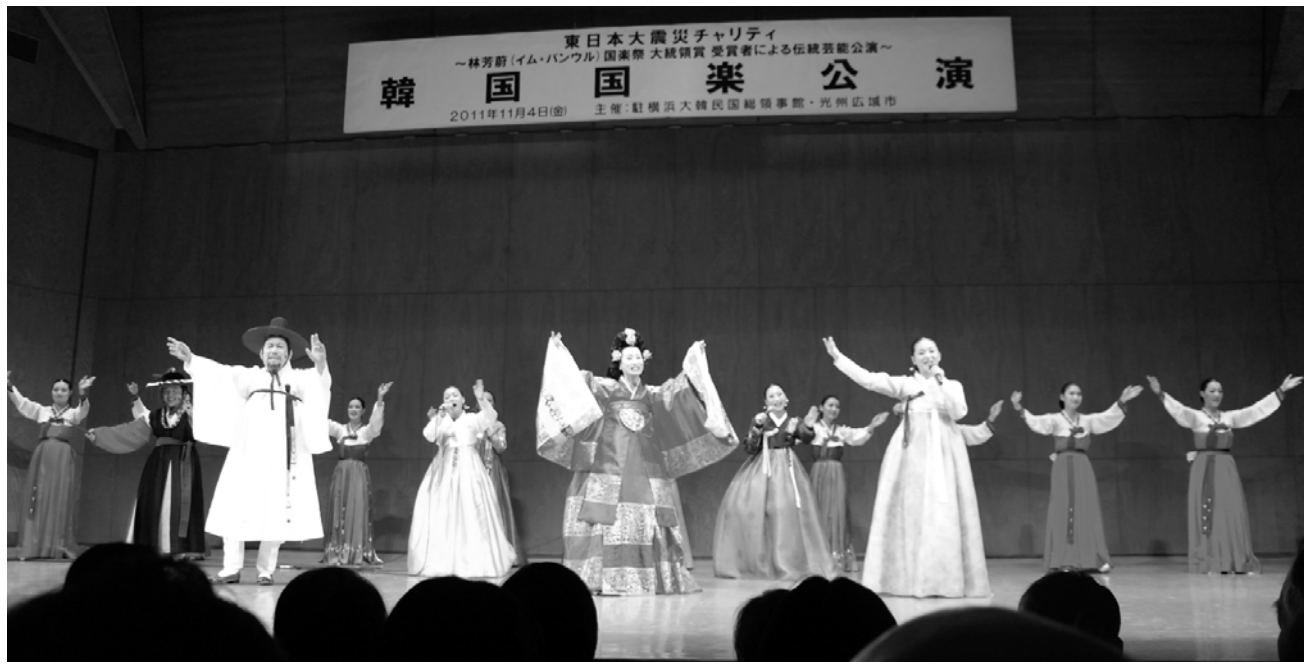
'이기중의 유림맥주이야기'

10일 광주문화아카데미 강좌

광주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사)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관하는 2011년 제13기 광주문화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좌가 오는 10일 오후 4시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유림맥주전문' '맥주수첩' 등을 낸 맥주마니아 전남대 인류학과 이기중(사진) 교수가 '여행에게 길을 묻다-비어터 이기중의 유림맥주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그는 맥주의 탄생과 발전 및 유형에 따른 각 나라별 맥주이야기를 소개하고, 맥주를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문의 062-523-7830. /오광록기자 kroh@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현지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으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정 여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정하시니까 태양광설치 않나. 해마다에너지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일 아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기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2011년 신제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기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프리모가발